

광주 북구, 박행보 화백 미술품 기증 협약식



광주 북구(청장 송광운)와 금봉 박행보·(사)시화마을 금봉문화진흥회(이사장 안병국)는 19일 북구청에서 금봉 박행보 화백 작품과 소장품 기증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 북구청 제공>

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 현충사 방문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회장 이선구) 회원40여명은 최근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찾아 분향하며 충무공의 업적을 기억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 제공>

광주대 개교 35주년 기념식 열려



학교법인 호심학원(이사장 정용득)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최근 대학 호심관 소강당에서 교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창설 45주년, 대학 개교 3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광주대 제공>

연금공단 광주본부 장애인 영화관람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신)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메가박스 클럽버스 하남 영화관에서 '장애인과 수급자가 함께 하는 영화 관람' 행사를 실시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어느 세대든 가시밭길에서 필요한 건 인내”

해남 출신 헤당 황승우 '가시밭도 밟으면 길이 된다' 펴내

난관 속에서도 학업 전념 교육자 길 걷다 '80년 5월' 겪고 불교 귀의...외국 포교도

“나라의 큰 정치인이, 잘 사는 기업인이, 인기 있는 연예인이 생명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몹시 아프다. 우리 사회에 왜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만연할까?”

해남 출신 헤당(慧堂) 황승우(77·성불암 주지스님) 선생이 최근 '가시밭도 밟으면 길이 된다'(책가)를 펴냈다. 금언처럼 다가오는 책 제목은 작은 시련에도 쉽게 포기하고 생명을 버리는 이들에 대한 따끔한 질타로 들린다.

그는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의 배고픈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가 겪어온 눈물겨운 삶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한다.

자서전답게 책에는 삶의 이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동년배 세대가 그렇듯 그는 일제시대와 6·25, 유신과 5·18민중항쟁, 군사독재로 이어지는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었다.

특히 한국전쟁 기간과 50년대 중반 무렵은

극한의 공핍의 시기였다. 방 한 칸, 한 끼의 밥이 없을 만큼 생존이 절박한 시대였다.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 세대는 주경야독을 했다”며 “당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맨손으로 세파와 싸우면서 가정과 사회, 국가를 일궈냈다”고 그는 회고했다. 그 또한 숱한 난관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다. 마침내 그는 199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교환교수로 대학 강단에 서는 꿈을 이룬다.(이전에 그는 광주서중·일고 등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꼰대’(선생의 은어의) 잔소리쯤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때와 지금은 엄연히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는나고.

저자가 초점을 둔 것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있는 ‘가시밭’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은 불굴의 의지라는 것이다.

황 선생의 죽마고우인 역사학자 이이화씨는 “그와 나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꿈과 회



망에 찬 소년들이라고 할까? 결단코 신세 한탄을 한 적이 없다고 기억한다”며 그와의 우정을 떠올린다.

그러나, 80년 5월 황 선생은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비극과 맞닥뜨린다.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다. 그해 5월 21일 공수단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 현장에서, 그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영어 통역을 하게 된다. 생주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망설였지만 젊은이들의 원혼을 위해 통역을 결심한다.

“나와 외신기자들을 상무관 안으로 안내하

여 주세요. 이들에게 계엄군들의 만행을 보여줘야 합니다. 혼백의 억울함을 온 천하에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즈음 그는 동생인 황지우(시인)·황광우(작가)도 구속이 되고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다. 몇날 며칠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얼마 후 그는 “이 무도한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며 속세를 떠나 수도에 전념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지리산에서 수행을 마치고 불교에 귀의한다. 교육자의 길에서 수행과 진리를 찾은 고행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외국 포교에도 눈을 돌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나가 영어 법문으로 설법을 했다.

그의 동생 황지우 시인은 그를 이렇게 말한다. “형은 집채를 버티고 있는 주춧돌과도 같은, ‘존재의 참을 수 없는 무거움’ 그것이 내 형의 삶이었다”고.

올해 희수(喜壽)를 맞은 그는 자서전을 매개로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싶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인내의 덕목을 강조하는 이유다.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사람이란 시간과 공간에 구속 받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무진장한 우주 자체다... 젊은 세대가 그들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어온 가시밭길을 한번쯤 경청할 필요가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일수 목포대 교수팀, 대한용접·접합학회 우수 논문상

목포대학교(총장 최일) 기계공학과 김일수 교수와 용접&자동제어실팀 실팀이 최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용접·접합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포스터 부분)을 수상했다.

김 교수와 실팀실팀이 이번 학술대회에서 수상한 논문 주제는 ‘고강력 강 파이버 레이저 용접부의 미세조직



으로 지원을 받아 진행했으며 파이버 레이저 공정 중에 발생하는 미세조

조직 파단의 종류를 분류하는 탄소당량 부 파단특성 평가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이번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파이버 레이저 공정 중에 발생하는 미세조

직 파단의 종류를 분류하는 탄소당량 부 파단특성 평가를 위한 논문으로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동안 김 교수는 2013년 대한용접·접합학회에서 ‘탄원 가스메탈아크 용접의 토치 극간거리에 관한 실험적 연구’에 관한 논문으로 우수 논문을 수상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광주수질환경 최동주 대표 1일 명예역장 위촉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8일 광주수질환경 최동주 대표를 금남로4가역 1일 명예역장에 위촉했다. 최 대표는 이날 하루동안 금남로4가역에서 지하철 승객들을 대상으로 승차권 발매를 돕는 등 다양한 업무체임을 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전남우정청, 사회복지시설 나눔 활동



전남지방우정청(청장 문성계)과 광주전남 27개 주요 우체국은 최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재능기부, 청소 등 봉사활동, 생필품 전달 등 행복나눔 활동을 펼쳤다. <전남지방우정청 제공>

내방

▲민연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 ▲이정석 / 농업통상과 사무관 ▲문원탁 / 홍보담당관실 사무관 ▲산동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박인주(정읍보호관찰소장)·신수덕씨 장남 병규군(여수 LG화학) 정공성(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서영숙씨 차녀 고운(광주문정여고)양=23일(토) 오전 11시 50분 광주라페스타 4층 디어망울

▲박준일(광주CBS 대기자)·강정숙씨 장남 현웅(한국기업데이터 대리)군 김창욱·장정근씨 장녀 은영(현대미디어 PD)양=광주피로연-22일(금) 오후 6시 30분 라마다호텔 5층 대연회장. 결혼식=30일(토)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웨딩컨벤션 5층 그랜드룸.

▲이경섭(목사)·김희녀씨 장남 인석(전 남대 치과병원 전공의)군 이진서(전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장·주)구산건설 대표)·황선희씨 장녀 은민양=30일(토) 낮 12시 50분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 4층 그랜드볼룸.

중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진도분원(분원장 이종혁) 정기총회=20일(수) 오전 10시 30분 진도 노인복지관 옆 진도아트센터 2층 010-3728-9355.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북구분원(분원장 이근중) 정기총회=23일(토) 오전 11시 광주전남 도지원 회의실 010-4626-1165.

동창회

▲동강대학 관광과 총동문 체육대회=24일(일) 오전 10시 모교운동장 010-9855-2177.

향우회

▲재광 보성군 향우회(회장 정인재) 고향문화탐방=21일(목) 오전 9시 광주 동구 소태역 집결. ▲재광 나주 향우회(회장 유덕한) 정기총회=22일(금)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남구 대동문화재단사무실 12층 010-2629-0808.

알림

▲화산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동반는 화산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무료 상담=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지원 062-521-1365.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문화 조성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모집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원=페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광주시 생활체육아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맘보뷰엔터 살사동호회원=라틴댄스, 살사, 차차 등. 010-5136-0028.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쌍촌동 원용방송국 062-232-7223~4.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부음

▲오경옥씨 별세 택진·성남·속희씨 부친상=발인 21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Advertisement for a funeral home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families.